

고대 삼국의 언어 표기관

이기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고대에 우리 민족이 한자(漢字)로 글을 썼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간혹 한자와 다른 문자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 있지만 실물의 밑받침이 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의 기원은 상형(象形)이었다. 말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表意文字),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을 가진 단위를 나타내는 표어문자(表語文字)였다. 그런데 중국어는 단어들에 단음절이었고 그 문법은 단어들의 배열 순서 즉 어순(語順)에 의존하였다. 다른 고대의 상형문자들, 수메르의 설형문자(楔形文字)나 이집트의 신성문자(神聖文字)는 모두 역사의 유물이 되었는데, 유독 한자만이 오늘날까지 생명을 부지하여 온 것은 그것이 마침맞게 중국어와 맺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자의 기원과 역사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으나, 한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린 뒤에 어디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아마도 일찍 고구려에, 뒤이어 백제와 신라에 들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서력 기원 전에 위만조선(衛滿朝鮮)이나 낙랑(樂浪)을 비롯한 한(漢)의 군현(郡縣)이

있었다는 기록, 고구려에는 건국 초에 『유기』(留記) 100권이 있었던 것을 영양왕 11년(서기 600년)에 이문진(李文眞)이 『신집』(新集) 5권으로 개수하였으며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346~375) 고흥(高興)이 『서기』(書記)를 편찬하였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6년(545)에 거칠부(居柒夫)가 『국사』(國史)를 편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한자와 만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한다.

한자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선조들은 기쁨보다 고민이 더 컸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자는 자기네가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을 손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끝 맺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국가 사회의 발전으로 기록의 필요성이 절박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자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택한 것이 한문(漢文)이었다. 입으로는 자기네 말을 하면서 글로는 한문을 쓰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 시작한 한문이 2천 년이나 이어졌던 것이다. 구어(口語)와 동떨어진 문어(文語)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으며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면 그만일 듯도 하다. 순전한 가상이지만, 만약 한자 이외의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했다라도 한자를 택했을 개연성이 컸을 것이다. 이런 추상은 한자가 동아시아의 대문명권(大文明圈)을 대표하는 것임을 감안한 데서 나온 것이다. 대문명권의 위력은 가위 절대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서유럽의 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로마의 문화가 서유럽 전체에 파급되었는데 그 중심에 라틴어가 있었다. 일찍이 메이에(A.Meillet)는 라틴어가 서유럽 언어들의 밑바탕을 이루어왔음을 누누이 설명하면서 라틴어와의 절연(絶緣)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문화가 막강한 위력으로 이웃에 퍼졌는데 그 중심에 한자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고대 삼국에서 한자, 한문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기록의 수단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중국의 문화와 학문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은 곧 문명화(文明化)의 길이었다. 중국의 영향은 어떤 것보다도 언어에 심각한 자국을 남겼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독자적인 언어를 굳게 지켰음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2.

고대 삼국에서 한문으로 글을 씀에 있어 맨 먼저 부닥뜨린 문제의 하나가 고유명(固有名)의 표기였을 것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자 기록의 작성에 있어 인명(人名), 지명(地名), 관직명(官職名)이 빠지는 일이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자를 빌려 고유명을 표기하는 방법 즉 차자법(借字法)이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발견된 가장 오랜 금석문(金石文)인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를 보기로 한다. 이 비는 5세기 초(서기 414년)에 건립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첫머리에 ‘鄒牟王’(중세 한자 음으로 읽으면 ‘추모왕’)과 함께 ‘夫餘’(부여), ‘奄利’(엄리) 등의 이름이 보인다. ‘鄒牟’는 음차(音借) 표기로 보아 잘못이 없을 듯하다. 이들 한자는 뜻을 버리고 음만 취한 표기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 시조(始祖)의 이름은 ‘東明聖王’(동명성왕)으로, 휘(諱)는 ‘朱蒙’(주몽) 등 몇 가지로 표기되었다. 여기서 ‘朱蒙’은 위에서 본 능비의 ‘鄒牟’와 같은 이름의 표기임이 확실하며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東明’도 그렇게 볼 수 있을 듯하다. 이표기(異表記)가 많은 것이 음차 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자의 선택에 차이나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권 37)의 고구려 지명들의 검토는 왕을 ‘皆’(기)라 하였음을 보여준다.(王逢縣 一云皆迫 漢氏美女迎安藏王之地 故名王迎) 이 ‘기’는 부여의 ‘加’(가), 신라의 ‘干’(간), ‘翰’(한)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鄒牟王’의

‘王’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추모’라는 고유명에는 ‘기’가 더 어울렸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렵에 ‘王’이라 쓰고 ‘기’라 읽는 법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여기서 이 비문의 ‘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永樂大王’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 때에 이미 시호(諡號)와 연호(年號)를 중국의 본을 따서 지었던 것이다.

신라의 「울진봉평비」(蔚珍鳳坪碑)는 위의 능비보다 1세기 가량 뒤진 것인데, 그 고유명 표기는 별로 다름이 없다. 이 비문에 나오는 고유명들은 거의 다 음차자로 표기되었는데 ‘寐錦王’(미금왕)과 ‘葛文王’(갈문왕)의 ‘王’, ‘啄部’(탁부)나 ‘沙啄部’(사탁부)의 ‘部’, ‘阿大兮村’(아대혜촌)이나 ‘葛尸條村’(갈시도촌)의 ‘村’은 그 한자 본래의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봄이 온당하지 않은가 한다. 신라의 ‘寐錦’은 과거에도 몇 예가 알려져 있었는데 ‘王’이 붙은 예는 이 비문에서만 볼 수 있다. ‘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말을 할 수 없으나 ‘금’은 ‘尼師今’(니스금), ‘尼叱今’(닛금)의 ‘今’, 중세국어 ‘:님·금’의 ‘금’과 같은 말임에 틀림없으며 이 ‘금’이야말로 왕위를 가리킨 말이었다. 이렇게 볼 때 ‘寐錦’에 다시 ‘王’이 붙은 것은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고대에 삼국에서 고유명들을 음차자로 표기한 것은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중국 자체에서 외국 고유명의 표기에 사용된 방법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고유명의 그것과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들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주변의 외족(外族)들을 낮잡아 사이(四夷)라 불렀으므로 좋은 뜻을 가진 글자는 택하지 않음이 예사였다. 북적(北狄)의 ‘匈奴’(흉노), ‘鮮卑’(선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고대 삼국에서는 도리어 좋은 뜻을 지닌 한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고유명의 발음과 같거나 비슷한 한자들 중에서 그 의미도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낼 수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생각일 뿐, 오늘날 고대 삼국의 고유명 표기를 보면서 그 글자들을 택한 이유를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었을 것이다.

3.

고대 삼국에서 음차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표기법이 발달하였다. 그것은 한자의 새김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새김이란 “天 하늘 텨”의 ‘하늘’을 가리킨다.

‘새김’이란 말도 역사가 오랜 것이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동사 ‘사기다’에서 파생된 명사다. “또 正音으로써 곧 因호야 더 翻譯호야 사기노니 又以正音 就加譯解”(석보상절서 6), “그 ㅼ들 사기거든 解其義”(법화경언해 6.38). 『훈몽자회』(범례 4)의 “諺文으로 사김호디 훈가지라 諺解亦同”에 나타나는 ‘사김’은 바로 ‘새김’의 고형이다. 이 파생명사는 동명사형 ‘사굼’(능엄경언해 9.113), ‘사굼’(원각경언해 서9)과는 구별된다. ‘사굼’의 예를 15세기 문헌에서 볼 수 없음이 아쉽지만, 위의 ‘사김’은 이런 파생명사가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사김’을 한자어로는 ‘훈’(訓) 또는 ‘석’(釋)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삼국유사』(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의 ‘徐伐’에 단주(註)에 “今俗訓京字云徐伐”이라 한 것이 가장 이른 예가 아닌가 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약용의 『아언각비』 등에서도 ‘훈’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세진의 『훈몽자회』, 이수광의 『지봉유설』, 황윤석의 『화음방언자의해』 등에는 ‘석’이라 하였음을 본다.

한자의 새김을 표기에 이용하는 일이 새김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단계에서만 가능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문자 기록에 관여한 지배계급 사이에서는 한자들의 새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고대의 고유명 표기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삼국에 다 새김을 이용한 표기법(석차법 釋借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새김은 한자의 교육에서 싹튼 것인데 고대 삼국에서 동일한 방식의 한자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국에서 다 같이 음차법만으로 표기함에 불만감이 있어 왔기에 석차법을 채택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음차법의 결합은 고유명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석차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석차법이 음차법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석차법과 음차법의 병용(並用)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고구려의 차자표기 자료는 『삼국사기』(권 37)에 실려 있는 지명 표기가 주종을 이룬다. 여기에는 한 지명에 대하여 한 표기만 제시된 예들도 더러 있지만 두 표기가 제시된 예들이 많고 간혹 세 표기가 제시된 예들도 있어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두 표기가 있는 예로 “買忽 一云水城”을 들어 본다. 이것은 현대의 경기도 수원(水原)인데, ‘미홀’과 ‘슈성’의 두 이름이 있어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위의 표기에서 ‘一云’ 앞뒤에 있는 (1) ‘買’와 ‘水’ (2) ‘忽’와 ‘城’이 대응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1), (2)와 같은 대응이 다른 고구려 지명들의 표기에서도 발견되므로 이 가정이 옳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買忽’은 음차 표기요 ‘水城’은 석차 표기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고구려어에서는 ‘水’와 ‘城’의 새김이 각각 ‘미’(買)와 ‘홀’(忽)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한 한자의 새김이 몇 개의 음차자로 적히기도 하였음을 본다. “水谷城縣 一云買旦忽”에서는 바로 위에서 행한 우리의 추정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谷’의 새김 ‘旦’(단)을 얻는다. 그런데 “於支吞 一云翼谷”, “十谷縣 一云德頓忽”, “習比谷 一作吞” 등을 보면 ‘谷’의 새김이 ‘吞’(툰), ‘頓’(돈)으로도 나타남을 본다. 현대의 경기도 인천(仁川)은 “買召忽縣 一云彌鄒忽”이라 표기되었는데 ‘買’(미)가 ‘彌’(미)로도 표기될 수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이표기(異表記)들이 고구려어에서 물이나 골짜기를 가리킨 말의 실제 발음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신라의 석차 표기의 예는 인명, 지명, 관직명 등에서 볼 수 있다. 인명의 한 예로 “素那 或云金川”(삼국사기 권47)을 들면 이것은 문무왕 때의 장수 이름인데 ‘素那’(소나)는 음차 표기요 ‘金川’은 석차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金’의 새김은 ‘素’(소), ‘川’의 새김은 ‘那’(나). 이들은 중세국어의 ‘쇠’(金)나

‘내(川)와 비슷한데 표기가 너무 소략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 하나의 예로 진흥왕 때의 사람 “居柒夫 一云荒宗”(삼국사기 권44)를 들어 본다. 이 이름은 『창녕진흥왕척경비』에는 ‘居七夫’라 적혀 있다. 여기서 ‘居柒夫, 居七夫’(거칠부)는 음차표기요 ‘荒宗’은 석차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居柒, 居七’(거칠)은 ‘荒’의 중세어 새김 ‘거칠’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宗’의 중세어 새김은 ‘므르’여서 ‘夫’(부)와는 거리가 멀다. 아마도 ‘宗’의 신라어 새김은 중세어 새김과는 달랐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7)에 이 이름이 ‘久遲布禮’라 적혀 있음을 주목함에 그치려고 한다.

신라의 석차 표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훨씬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많은 듯하다는 점이다. 가령 신라 시조(始祖)에 대하여 『삼국사기』(권1) 첫머리에는 성(姓)이 ‘朴’이요 휘(諱)는 ‘赫居世’라 하였다 했는데 『삼국유사』(권1)는 ‘赫居世’는 향언(鄉言)이라고 못 박고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라고 덧붙이고 있다. 아마도 ‘弗矩內’가 오랜 음차 표기인 듯하고 ‘赫居世’는 어느 후대에 이루어진 표기로서 순정한 석차 표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백제에도 석차 표기가 있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국사기』(권37)의 백제 지명에 ‘熊川州 一云熊津’이라 한 것은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양서』(梁書 권54)와 『주서』(周書 권49)에 ‘固麻’로,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4)에 ‘久麻那利’로 표기되었으니 ‘熊’의 백제 새김이 ‘고마, 구마’였음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도 『용비어천가』(권3)에 “熊津 고·마느르”라 한 것은 옛 석차 표기를 한글로 옮겨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고·마’는 중세국어의 ‘: 곱’에 대응되는 말로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삼국사기』(권26)는 백제 무령왕의 휘(諱)는 ‘斯摩’(스마) 혹은 ‘隆’(룽)이었다고 했는데 『일본서기』(권16)는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인용하여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琨支)가 일본으로 오던 길에 섬에서 무령왕을 낳았으므로 ‘鳴王 시마기시’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시마’는 중세어 새김인 ‘: 섬’(島)의 고행으로 일본어의 sima(島)도 이와 같은 어원의 말이다. ‘기시’는 왕을 가리킨 백제어 단어로 광주(光州)에서 선조 8년(1575)

에 간행된 『천자문』의 “王 기즈 왕”에 보이는 ‘기즈’와 일치하는 것이다.

『삼국사기』(권37)의 고구려 지명에는 음차 표기와 석차 표기가 나란히 적힌 예들이 많음을 위에서 보았는데, 백제 지명에는 단일 표기가 대부분이어서 큰 실망을 안겨 준다. 그러나 복수 표기가 더러 있으며 그중에는 음차 표기와 석차 표기로 해석될 만한 것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매우 다루기 난감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仍利阿縣 一云海濱”에서 ‘仍利阿’(잉리아)를 음차 표기로 ‘海濱’을 석차 표기로 가정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을 모색해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석차자는 애초에는 본래의 의미에 맞는 경우에 쓰였었다. 그러다가 후대로 올수록 그 용법이 확대되어 석차자도 본래의 의미와는 관계 없이 그 새김의 음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게 되었다. 예를 하나만 들기로 한다. ‘珍’의 새김은 ‘돌’이었다. 그런데 “波珍食 或云海干”(삼국사기 권38)에서 ‘波珍’의 ‘珍’은 ‘바달[海]의 ‘돌’을 나타내는 음차자처럼 쓰였음을 본다. 백제 지명 표기의 “馬突縣 一云馬珍”(삼국사기 권37)에서도 같은 용법을 보여준다.

끝으로 석차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석차법은 우리 선조들의 독창적 발상(發想)의 산물이었다. 저 위에서 음차법이 중국에도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석차법은 중국에서는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중국에는 한자의 새김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뒤에 범어(梵語)로 된 말들의 발음을 적기도 하고 뜻을 따서 번역하기도 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Buddha의 발음을 처음에는 ‘浮圖, 浮屠’라 적었다가 뒤에 ‘佛陀’라 적게 되었는데 ‘覺者’라 번역하기도 했었다. 얼핏 보면 이 ‘覺者’는 고대 삼국의 석차 표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覺者’라 쓰고 ‘佛陀’(불타)라 읽지 않았으니, ‘水城’이라 쓰고 ‘買忽’(미혹)이라 읽은 석차 표기와는 아주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많은 논저에서 석차 표기를 가리켜 한역명(漢譯名)이라 했음을 보는데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은 위의 설명에서 이미 스

스로 밝혀진 것이니 군말을 보낼 필요가 없겠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뒤에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군현(郡縣)의 이름을 크게 고쳤다. 지명을 통일할 필요를 느껴, 모두 한자 두 자로 고친 것이다. 이 때의 개명(改名)이 『삼국사기』에 신라(권34), 고구려(권35), 백제(권36)의 순서로 적혀 있다. 우리는 권37에 “買忽 一云水城”이라 있음을 위에서 보았는데 이것을 권35에서 찾으면 “水城郡 本高句麗 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와 만난다. 여기서 ‘水城郡’은 경덕왕 개명, ‘買忽郡’은 고구려 본명, ‘水州’는 『삼국사기』를 지은 고려 때의 금명(今名)이다. 여기서 개명은 고구려 때의 석차 표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35의 ‘水城’은 한자명으로서 ‘슈성’이라 읽은 것이었다. 경덕왕의 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한자 지명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권 34~36)에 실린 본명과 개명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한결같지 않음을 발견한다. 여기서 여러 예를 들어 논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셋째, 음차 표기와 석차 표기가 나란히 제시되었을 때에만 고대어의 연구가 믿음직하게 이루어짐을 특별히 강조해 둔다. 『삼국사기』(권34-36)에 실린 본명과 개명, 심지어 금명을 토대로 고대어 단어를 추정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음을 자주 목격하는데 이것은 자료의 기본 성격을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이다. 『삼국사기』(권38) 첫머리에 “신라 관명 중에서 ‘伊伐滄’, ‘伊濱’ 등은 모두 토언(土言)인데 그 명칭을 붙이게 된 까닭을 알 수 없다”(伊伐滄伊濱等者皆土言 不知所以言之意)라 한 말의 참뜻을 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4.

한자 차자법 즉 음차법과 석차법은 고유명 표기에 적용되다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문 책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덧붙이게 되었고 한문투로 글을 쓰면서 어순(語順)을 고쳐 보기도 하고 필요한 요소를 끼워 써 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국어로 읊은 시가(詩歌)까지

적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한자 사용의 방법들을 종래 구결(口訣), 이두(吏讀), 향찰(鄉札)이라 일컬어 왔다. 여기서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겨를이 없어 문자 표기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지적함에 그치기로 한다.

구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획수(畫數)가 적은 글자들이 선택된 사실과 행간(行間)에 써넣기 위하여 ‘ㄴ’(爲), ‘ㄷ’(尼), ‘스’(羅)와 같은 극단적인 약체자(略体字)를 만들어 쓴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자가 일찍이 겪은 가장 큰 변혁이었다. 일본의 ‘가나’(假名) 문자, 특히 가타카나(片假名)가 구결의 약체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동아시아 문자사(文字史)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해야 할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중국에서 간체자(簡体字)를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의 구결자와는 견줄 것이 못 된다.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한문 문장을 그대로 내리읽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한문을 번역하다시피 하여 읽는 ‘훈독법’(訓讀法)은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충청남도 서산군 문수사(文殊寺)에서 나온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 다섯 장에 적힌 구결이 한문 문장을 국어의 어순으로 고쳐서 읽었음을 보여주었고 그 뒤 고려 시대의 여러 구결 자료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이러한 독법을 우리 조상들이 창안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후대의 순독(順讀) 구결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석독(釋讀) 구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석독 구결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문을 조금씩 풀어 읽던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두는 한자를 이용한 문자 표기의 폭을 넓혀 보려는 끈질긴 시도의 소산이었다. 그런데 이두는 순정한 한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어 문장이라 하기도 어려운 얼치기였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형적인 표기법이 천년 넘게 쓰인 사실은 도무지 이상스럽기 짝이 없다. 여러 모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 위에서 말한 한자 문명권에서 태어난 하나의 기형아(畸形兒)였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향가(鄕歌)의 표기는 고대 차자 표기법이 도달한 정점(頂點)이었다. 한때는 『삼대목』(三代目)이란 향가집을 편찬할 만큼 왕성했던 표기법인데, 그 뒤에 아주 시들어 버렸으니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그 까닭을 캐묻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는 생각된다. 이런 구차스런 방법까지 써야 하는가 하는 체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무언가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하는 애절한 소망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소망이 결국은 훈민정음의 창제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5.

한자를 받아들인 고대 삼국인들이 그것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겪은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다른 글을 써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자 기록의 수요(須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참아야 했던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임시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이것이 천 년, 이천 년이나 계속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문자사(文字史)를 보면 이웃 나라에서 문자를 받아 그것을 조금 고쳐서 자기 나라 말을 기록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한자는 달랐다. 아마도 한자를 만난 것은 우리 민족의 많은 불행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한다. 외국 문어(文語)를 이렇게 오래 사용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그러나 고대 삼국인들 사이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기네 말을 표기하고 싶은 욕망이 싹텄다. 한자가 아무리 이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문자라 하더라도 문자란 본래 자국어(本國語)를 표기하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 삼국의 차자법의 역사는 곧 이 강한 집념을 추구한 긴 도정으로 요약된다.

위에서 고대 삼국의 차자 표기법을 대충 훑어보았거니와, 거기서 우리는 고대 삼국인들의 창의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독창성은 여러 분야에서 인정되어 왔지만, 문자 표기의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중국의 문자를 자기네의 필요에 맞게 고친 솜씨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한자를 딱 주무르듯 하였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는지 모른다. 이리하여 10세기 후반의 최행귀(崔行歸)로 하여금 『균여전』(均如傳) 서문에서 중국의 홍유석덕(鴻儒碩德)도 우리나라의 향찰을 알지 못한다고 개탄하게 한 것이다.

고대 삼국의 차자 표기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문자의 천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 천재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세계 문자사에 유례가 없는 새 문자의 창조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오랜 집념이 맺은 열매이며 그 천재적 창의성이 빚어낸 작품으로 이해될 때 비로소 한글 창제의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